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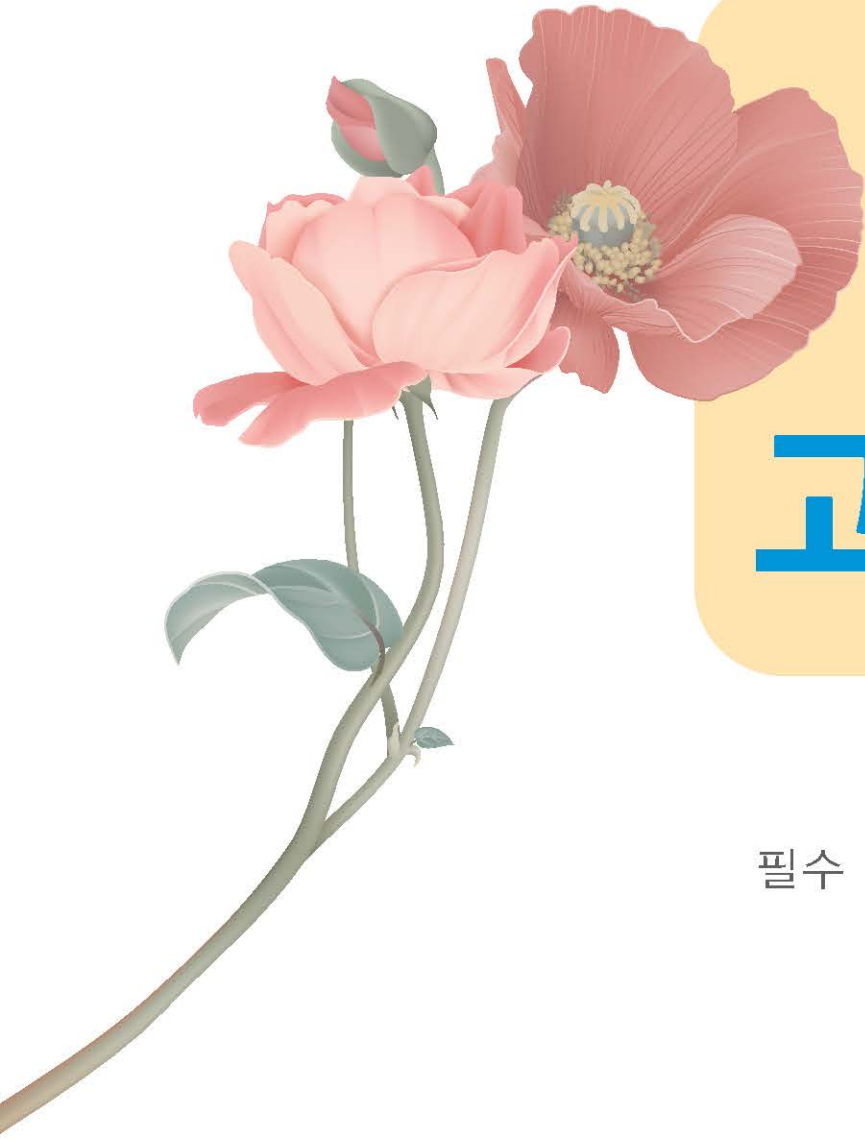
출제 포인트로 이해하는 고전시가

100발 실전서
100종

고등

고전시가

필수 작품으로 빠르게 완성하는
고전시가 실전서



차례 & 학습 계획표

| 고전 시가 개관 | 고전 시가의 흐름 • 고전 시가 출제 포인트 & 문제 풀이 비법 • 고전 시가 필수 어휘

I 고대 가요 | 향가 | 고려 가요

01	① 구지가_구간 외 / 공무도하가_백수 광부의 아내 ❖실전 복합문제 황조가_유리왕	016	월	일
	② 정음사_어느 행상인의 아내 ❖실전 복합문제 송인_정지상	020	월	일
	③ 제망매가_월명사 / 찬기파랑가_총담사 ❖실전 복합문제 이 몸이 주거 가서_성삼문 / 오백 년 도읍지를_길재	024	월	일
02	① 청산별곡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오우가_윤선도	028	월	일
	② 가시리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어이 못 오더냐_작자 미상 / 서경별곡_작자 미상	032	월	일
	③ 동동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창밖이 어른어른_작자 미상 / 속미인곡_정철	036	월	일
	④ 정석가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임이 오마 하거늘_작자 미상	040	월	일

II 시조

03 자연 예찬	① 십 년을 경영하여_송순 / 짚방석 내지 마라_한호 ❖실전 복합문제 흥망이 우수하니_원천석 / 청초우거진_골에_임제	046	월	일
	② 도산십이곡_이항 ❖실전 복합문제 수려기_이용휴 / 뎃동어미화전가_작자 미상	050	월	일
	③ 강호사시가_맹사성 ❖실전 복합문제 용비어천가_정인지 외	054	월	일
04 연군지정 / 인생무상	① 이 몸이 주거 가서_성삼문 / 가마귀 준비 마자_박맹년 ❖실전 복합문제 가마귀 겹다_홍고_이척	058	월	일
	② 오백 년 도읍지를_길재 / 청초 우거진_골에_임제 ❖실전 복합문제 천만리 머나먼 길에_황방연 / 어저 내 일이야_황진이	062	월	일
	③ 견희우_윤선도 ❖실전 복합문제 마환우설_홍성민	066	월	일
05 사랑, 그리움	① 동짓달 지나긴 밤을_황진이 / 이화우 흠뿌릴 제_계량 ❖실전 복합문제 뒷버들 갈히 건너_홍량 / 사미인곡_정철	070	월	일
	② 개를 여러마나 기르되_작자 미상 / 님이 오마 하거늘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개야 좃지 마라_작자 미상	074	월	일
	③ 어이 못 오더냐_작자 미상 / 귀뚜리 저 귀뚜리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_작자 미상	078	월	일
06 풍자 / 농촌 생활	① 두터비 파리를 물고_작자 미상 / 댁들에 동난지가 사오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매화_관섭 / 일신이 스자_한엇더니_작자 미상	082	월	일
	② 논밭 갈아 김매고_작자 미상 / 한숨아 세한숨아_작자 미상 ❖실전 복합문제 탐진어가 1_정약용 / 창내고자_작자 미상	086	월	일
	③ 농가 구장_위백규 ❖실전 복합문제 십 년을 경영하여_송순 / 접목설_한백겸	090	월	일

고전 시가의 흐름

고대 가요

고대 부족 국가 시절부터 삼국 시대 초기까지 불리던 노래를 통칭함. 주로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하며, 집단 활동의 의식이나 노동요 위주로 창작되다가 개인의 서정을 노래하는 가요가 창작됨.

주요 작품

「공무도하가」_백수 광부의 아내,
「구지가」_구간 외,
「황조가」_유리왕,
「정읍사」_어느 행상인의 아내 등

향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창작되었던 우리 고유의 시가로, 향찰로 표기된 노래. 신라 당대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를 의미했음. 4구체, 8구체, 10구체 향가로 구분됨.

주요 작품

「서동요」_서동,
「모죽지랑가」_득오,
「찬기파랑가」_총담사,
「제랑매가」_월명사 등

상고 시대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기원전 57년
신라 건국

남북국 시대

676년
신라 삼국 통일

918년
고려 건국

1170년
무신의 난

1231년
몽고의 침입

한시

남북국 시대 한자의 보급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창작된 한자로 된 정형시. 고려 시대 이후 과거 제도 실시, 불교의 융성 등으로 인해 발달함.

주요 작품

「추아우중」_최치원,
「제가야산독서당」_최치원,
「부벽루」_이색, 「사리화」_이제현,
「송인」_정자상,
「보리타작」_정약용 등

고려 가요

향가가 쇠퇴하고 고려의 귀족층 중심으로 한문 학이 융성하던 시기에 고려 시대 평민들의 삶의 애환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민요적 시가. 분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독특한 후렴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주요 작품

「가시리」_작자 미상, 「동동」_작자 미상,
「정과정」_정서, 「청산별곡」_작자 미상,
「서경별곡」_작자 미상,
「정석가」_작자 미상 등

출제 포인트

1

고전 시가의 주제

1 시조

(1) 자연 예찬

-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안빈낙도의 태도 등을 노래한다.
- 자연물의 생태를 인간적 덕성과 연결 지어 예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주로 자연물을 통해 지조나 절개의 의미를 전달한다.

(2) 연군지정 / 인생무상

- 연군지정을 표현한 작품들은 '충(忠)'이나 '절의(節義)'와 같은 유교적 덕목과 관련된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 연군지정을 표현한 작품들은 자연 속 삶이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는 인식을 노래한다.
- 인생무상을 표현한 작품들은 변함없는 자연과 대비하여 인간사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3) 사랑, 그리움

사랑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거나 이별 후에 느끼는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을 노래한 것으로, 기녀 등 여성 작가의 작품이나 사설시조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4) 풍자 / 농촌 생활

- 풍자를 표현한 작품들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며, 자연물 등을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농촌 생활을 표현한 작품들은 농촌을 배경으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삶을 노래한다.

2 가사

(1) 자연 예찬

- 시조와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안빈낙도의 태도 등을 노래한다.
- 사대부들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창작한 작품들이 많다.

(2) 사랑, 그리움

- 여성 화자를 설정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연군의 정을 노래한다.
- 여녀자들의 작품인 규방 가사에서는 남성 위주의 봉건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삶의 애환이나 임에 대한 그리움이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정으로 형상화된다.

(3) 가난

조선 후기 가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가난과 같은 현실의 문제나 실생활의 모습을 전면에서 다룬다.

(4) 기행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견문이나 감상 등을 노래한 것으로, 주로 공적인 임무로 길을 떠날 때 창작한 작품들이 많다.

(5) 교훈 / 유배

- 교훈을 표현한 작품들은 유교적 도덕률, 종교적 가르침, 생활의 지혜 등을 표현한다.
- 유배를 표현한 작품들은 귀양, 즉 유배를 통해 얻은 경험이나 견문, 유배지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노래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결백에 대한 호소 등이 함께 드러난다.

출제 포인트

2

고전 시가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

반복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방법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_작자 미상, 「가시리」
과장	대상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많거나 적게, 멀거나 가깝게 표현하는 방법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_작자 미상
설의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 두어라 이 다섯 빛기 또 더하여 무엇하리 _윤선도, 「오우가」
대구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법 ㉠ 이란을 어떠하며 저란을 어떠하로 _이항, 「도산십이곡」
대조	서로 반대되는 어휘나 구절의 대립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는 방법 ㉠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중(面目可憎) 되거고나 _허난설헌, 「유원가」
감정 이입	특정 대상(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옮겨 넣어, 대상과 화자가 같은 처지에서 같은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하는 기법 ㉠ 저 물도 내 안 갈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_황방현

고전 시가 필수 어휘

1. 순우리말 어휘

가없다	끝이 없다 ㉠ 하늘 같은 가없는 은역을 어찌 다 감사오리 _정철, 「훈민가」
건뭇	문득 ㉠ 동풍이 건뭇 부러 적설(積雪)을 헤더 내니 _정철, 「사미인곡」
고터	다시 ㉠ 이 몸이 주거 주거 일백 번 고터 주거 _정몽주
곰비	뒤에
괴다, 얼우다	사랑하다 ㉠ 괴시란뒤 우러곰 좃노노이다 _작자 미상, 「서경별곡」
군뜻	다른 생각 ㉠ 나도 입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_정철, 「속미인곡」
굿	끝 ㉠ 봉마다 맺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_정철, 「관동별곡」
굿다	끊어지다 ㉠ 우리도 그치지 말아 만고상청 호리라 _이항, 「도산십이곡」
꺾롭	강(江) ㉠ 나라히 파망(破亡)하니 외과 꺾롭슨 잇고 _두보, 「춘망」
꺾울	가을 ㉠ 강호에 꺾울이 드니 고기마다 스저 잇다 _맹사성, 「강호사시가」
꺾	끝 ㉠ 꺾스미 꺾홀 좃누아져 _충담사, 「찬기파랑가」
나리	시내 ㉠ 새파른 나리여히 _충담사, 「찬기파랑가」
낮브다	부족하다 ㉠ 아침이 낮브커니 나조허라 슬흠소냐 _송순, 「면앙정가」
남꺾	나무 ㉠ 불휘 기픈 남꺾 보르매 아니 밑씨 _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낱대	낱싹대 ㉠ 울령천(栗嶺川) 긴 감소에 낱대 들고 흘건다가 _강복중, 「수월정청흥가」
낙뫼다	영리하다. 약다 ㉠ 이저로 헤어든 소부(巢父) 허유(許由) 낙뫼더라 _윤선도, 「만홍」
녀다(네다)	살다. 가다 ㉠ 고인(古人)을 못 봐도 녀던 길 알피 잇네 _이항
녀름	여름(夏) ㉠ 강호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_맹사성, 「강호사시가」
노여	전혀 ㉠ 이 목음 이 스랑 견줄 뒤 노여 업다 _정철, 「사미인곡」
누역, 도롱이	비옷 ㉠ 씻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_맹사성, 「강호사시가」
뉘	누가 ㉠ 사비(柴扉)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뇨 _송순, 「면앙정가」
늦기다	흐느끼다 ㉠ 늦기는 듯 반기는 뒷 넘어신가 아니신가 _정철, 「사미인곡」
넋비	앞에 ㉠ 신 버서 손에 쥐고 곰비 넋비 넋비 곰비 _작자 미상
넋다	잇다 ㉠ 성신(聖神)이 니수샤도 경천근민(敬天근민)샤샤 _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놀애	날개 ㉠ 향 모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드리라 _정철, 「사미인곡」
도들벗	해가 둘을 때의 햇빛 ㉠ 서산의 도들벗 서고 _위백규, 「봉가 구장」
도로허	돌이켜 ㉠ 도로허 풀져 헤니 이리허여 어미허리 _허난설헌, 「규원가」
똥다	좋다 ㉠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문내 묘하호노라 _윤선도, 「만홍」
두견화	진달래 ㉠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를 부치 들고 _정극인, 「상춘곡」
딴히다	지키다 ㉠ 다만당 도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딴히라 호시도다 _윤선도, 「만홍」
뒹집	초가집 ㉠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뒹집을 짓노라 하니 _윤선도, 「만홍」
마노라	상전, 마님, 임금 등을 이르는 말 ㉠ 크게 기운 집에 마노라 혼자 앉아 _이원익, 「고공답주인가」
마초아	마침 ㉠ 회양(淮陽) 네 일홈이 마초아 꺾 툴시고 _정철, 「관동별곡」
뫼	산(山)
므로	꼭 ㉠ 기장밭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삶아 _김득연, 「산중잡곡」
므스, 므스	무슨 ㉠ 혜란(蕙蘭) 혜경(溪徑)에 낙업은 므스 일고 _신홍
뫼양	늘. 항상 ㉠ 산중(山中)을 뫼양 보라 동해(東海)로 가져스라 _정철, 「관동별곡」
바롤	바다(海) ㉠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_작자 미상, 「청산별곡」
버히다	베다 ㉠ 내 목음 버혀 내여 더 돌을 밧글고져 _정철
변우하다	번거롭고 걱정이 많다 ㉠ 세상의 변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 _강복중, 「수월정청흥가」
버리다	날카롭게 갈다 ㉠ 낫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둘러메고 _작자 미상
뫼취	뿌리
사뢰다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리다 ㉠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사뢰자 하니 _정철, 「속미인곡」
삼기다	생기다. 태어나다 ㉠ 락 비록 잇다 하니 왜(倭)를 아니 삼기던들 _박인로, 「산상탄」
삿기	새끼 ㉠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삿기 치니 _정철, 「관동별곡」
선긔다	서운하다 ㉠ 선긔면 아니 올세라 _작자 미상, 「가시리」
성글다 (성기다)	사이가 뜨다. 영성하다 ㉠ 어리고 성근 가지 너를 믿지 았았더니 _안민영, 「매화사」
손	손님 ㉠ 엇지흔 저른 소니 험 없이 다니는 것인가 _이원익, 「고공답주인가」
수이	쉽게 ㉠ 주색(酒色)에 못 슬린 이 몸을 수이 늣게 호노고 _작자 미상
슬밧다	살고 밧다

”

I

고대 가요 | 향가 | 고려 가요

고대 가요나 향가, 고려 가요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갈래야.
하지만 고전 시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어야겠지?
시험에 나올 때는 다른 고전 시가 갈래나 현대시와
연계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슷한 주제의 작품들은 꼭 정리해 두자!

“

고려가요 02 가시리

제목의 의미 '가시리잇고'의 준말, '가시렵니까'라는 뜻

포인트로 작품 읽기

㉠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1연(기): 원망에 찬 하소연

날리는 엇디 살라 호고

벗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2연(송): 하소연의 고조(좌절)

㉢ 잡스와 두어리마는는

㉣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3연(전): 절제와 체념

㉤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 가시는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4연(결): 재회에 대한 소망과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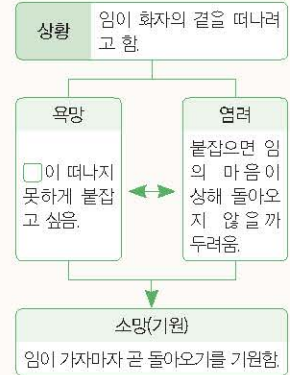
포인트 1 후렴구의 역할

위	감탄사
증즐가	악기 소리를 통해 낸 의성어
대평성덕	시적 상황(임과의 이별)과 어울리지 않는 내용으로, 궁중악으로 편입되면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

특별한 의미 없이 매 연의 말미에 반복됨.

- 리듬감을 살림.
- 통일성을 부여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줌.
- □을 구분하는 역할을 함.

포인트 2 화자의 상황과 정서



역어 읽기

	서경별곡	가시리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임. •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함. 	
차이점	화자가 떠나는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며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화자가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임.

@ 출제 히스토리

2001 수능 흥량의 시조 「뒤틀버들 가려 꺾어」, 사설시조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허난설헌의 가사 「규원가」와 역어 작품 간의 공통점, 화자의 정서, 작품의 내용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17 6월 모평 고려 가요 「동동」과 역어 갈래상의 특징, 후렴구의 역할, 작품 간의 비교 감상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포인트 1 연 | 2 읽

1

포인트 13

윗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딱걸리’와 ‘보리밥’은 농민들의 소박한 생활상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도리깨’는 보리타작의 도구이고, ‘마당’은 노동의 공간이다.
- ③ ‘노랫가락’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노동의 강도가 높아짐을 암시한다.
- ④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는 몸보다 마음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벼슬길에 헤메리오’는 화자의 깨달음을 설의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낙원’과 ‘벼슬길’의 의미 화자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통해 육체와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노동의 즐거움을 깨닫는다. 이러한 화자에게 있어서 ‘낙원’이란 거창한 이상향이 아니라 소박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며 ‘벼슬길’에서 헤매는 것이 세속적인 권력이라는 욕망에 집착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2

포인트 2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보리타작을 하려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B]는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노동하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C]는 [A], [B]에서 주목한 농민들의 모습에서 정신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D]에는 [A]~[C]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화자의 삶과 연계되어 진술되고 있다.
- ⑤ [A]~[D]에는 지난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는 화자의 의지가 제시되고 있다.

문제 유형 분석

비슷한 소재를 다룬 두 작품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제 접근법 분석

먼저 <보기>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과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선지를 중심으로 본문과 비교하되 ‘~와/과 달리’, ‘모두’와 같은 말에 주의하여 선지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 정약용, 「장기 농가(長鬚農歌)」

갈래	한시(절언 절구)
성격	사실적, 비판적
주제	벼슬아치들의 횡포 비판
특징	• 작가가 창기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지은 한시임. •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농민들의 아픔을 형상화함

3

포인트 1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호박 심어 토실토실 떡잎 나더니	新吐南瓜兩葉肥
밤사이 덩굴 뻗어 사립문에 얽혔네	夜來抽蔓絡柴扉
평생토록 수박을 심지 않는 것은	平生不種西瓜者
관노들이 시비 걸까 두려워서라네	剛怕官奴惹是非
	- 정약용, 「장기 농가」* (제4수)

- ① 윗글에는 <보기>와 달리 농민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대화 형식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달리 당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윗글과 달리 농민들의 애환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일상 소재를 활용하여 농민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려 평응용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는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여음.
-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 선하면 서운하면. 귀찮게 하면.
- 아니 올세라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설은 서러운.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짐을
짓고 짐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펼
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놓고 쌍배목(雙排目)* 결쇠에 금거
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

- 작자 미상

-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열거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주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2 (가)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나)의 노래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 당시 임을 서운하게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다.
- ② 임을 원망했던 이별 당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③ 임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
- ④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임이 떠날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고 있다.

03 (가)를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시리」의 형식상 특징】

-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후렴구를 반복함.

【「가시리」의 내용상 특징】

-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恨)의 정서가 나타남.
-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음.

- ① ‘가시리 가시리잇고’에서 3·3·2조의 3음보 율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위 증즐가 대평성대’는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후렴구라고 할 수 있군.
- ③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는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선하면 아니 올세라’에는 이별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군.
- ⑤ ‘설은 님 보내옵나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군.

가 개를 여러문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라.

▶ 초장: 개에 대한 마음

뒤운 님 오며는 꼬리를 회회 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닷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부르락 나으락 킁강 즈저서 도라가게 한다.

▶ 중장: 마음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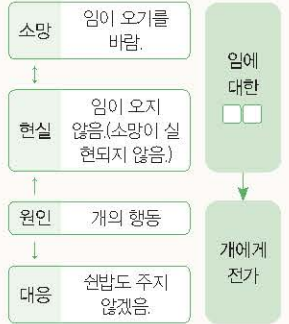
싣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증장: 미운 개에 대한 보복

포인트 ① 해학이 드러난 부분

- 의 행동과 화자의 태도
- 음성 상징어(회회, 버둥버둥, 강강)

포인트 ② 개에 전가한 원망



@ 출제 히스토리

2022 예비 수능 개를 소재로 한 시조들과 엮여 중심 소재의 기능, 작품의 변모 양상, 작품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나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 초장: 임이 온다는 소식에 조금해짐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남비 남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곁눈으로 흘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흘날 껍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땀게도 날 속였구나.

▶ 중장: 착각을 하여 임 마음을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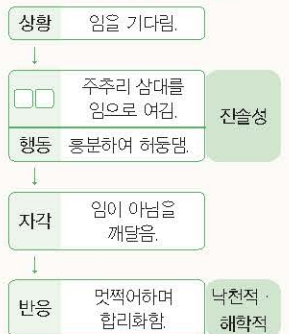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웃길 뻔하였어라. ▶ 증장: 자신의 착각을 멋쩍어함

- * 거머희뜩 검은 듯 흰 듯한 것. * 곰비남비 남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얽치락뛰치락 허둥거리며.
- * 주추리 삼대 발머리에 심어 둔 삼의 줄기.

포인트 ③ 해학이 드러난 부분

- 화자의 행동과 태도
- 음성 상징어(곰비남비 남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워렁통탕)

포인트 ④ 진솔성과 낙천성



@ 출제 히스토리

2015 9월 모평 A 고려 가요 「정석가」와 엮여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사실시 조에서의 해학성과 관련한 감상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



고려 왕조의 회고

01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렸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성격 회고적, 애상적
주제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한탄과 무상감
해제 고려의 유신이었던 작가가 고려의 멸망에서 느끼는 무상감을 노래한 시조이다. 화자 자신을 '객'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을 객관화하고 있으며, 시각과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02

백설(白雪)이 즈자진 골에 구름이 머물러라
반가운 매화(梅花)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夕陽)에 홀로 서 이서 갈 곳 몰라 호노라 - 이색

성격 감상적, 회고적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안타까움
해제 고려의 유신인 작가가 기울어져 가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국충정의 마음을 노래한 시조이다.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서자 이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눈 마주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節)이면 눈 속에 푸를소냐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호노라 - 원천석

성격 의지적
주제 고려 왕조에 대한 지조
해제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굳은 절개를 노래한 시조이다. 의(義)가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는 선비의 지조와 충절을 표현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통해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우국충정

04

가마귀 싸호는 골에 백두(白鷺)야 가지 마라
성난 가마귀 흰빛출 새오나니
청강(淸江)에 좋은 시스 몸을 더러일까 호노라 - 정몽주의 어머니

성격 교훈적, 우의적, 경세적
주제 올바르게 못한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한 경계
해제 조선 건국 시기 정몽주가 권력을 탐하는 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경계하는 시조이다. 조선 건국에 참여한 세력과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대조하여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05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야
고국 산천(古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하니 올동 말동 하여라 - 김상헌

성격 우국적
주제 고국을 떠나는 신하의 비분강개와 우국충정
해제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게 된 작가가 나라에 대한 격정과 충성을 노래한 시조이다. 나라가 내외환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느끼는 비분강개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06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량(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이서 임의(任意)로 둔니며서
구티야 광명(光明)흔 날빛을 따라가며 덤느니 - 이준오

성격 풍자적, 우의적
주제 간신의 횡포 풍자
해제 고려 말에 승려 신돈이 공민왕의 종애에 힘입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통탄하여 풍자한 시조이다. 신돈의 횡포와 공민왕에 대한 충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7

철령(鐵嶺) 노끈 봉(峰)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冤淚)를 비 사마 띄여다가
넘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엇드리 - 이항복

성격 연군가, 절의가
주제 임금에 대한 충절
해제 작가가 유배를 당해 귀양을 가면서 지은 시조이다. 작가의 원통한 심정이 감정 이입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08

장검을 빼어 들고 백두산(白頭山)에 올라 보니
대명(大明) 천지(天地)에 성진(腥塵)이 좁겨세라
언제나 남북풍진(南北風塵)을 헤쳐 불고 호노라 - 남이

성격 의지적, 우국적
주제 국란 평정의 의지
해제 국란 평정의 웅혼(雄渾)한 기백과 보부를 노래한 시조로, 작가의 당당하고 힘찬 조국애의 기상이 잘 나타나 있다. 국경을 이루는 백두산의 제일봉에 올라가 장검을 빼어 들고서 적의 침입으로 어지러운 나라를 태평케 하려는 호기(豪氣)를 드러내고 있다.

출제 포인트로 이해하는 고전시가



100발 실전서
100중

고등

고전시가

정답 및 해설

이 ① 구지가_구간화
공무도하가_백수 광부의 아내

가 구지가

핵심 정리	
길래	고대 가요, 주술요, 집단 무가, 노동요
화자	집단의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이들
성격	주술적, 집단적, 제의적
주제	임금(새로운 생명)의 강림 기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로왕의 탄생 신화에 삽입된 고대 가요임. • 공적·집단적인 소망을 대상에 대한 명령과 위협의 방식으로 표현한 주술적인 노래임. • 사람들이 땅을 두드리며 불렀다는 점에서 노동요로도 볼 수 있음. • '호명-명령-가정-위협'의 구조로 사상을 전개함. • 특정 대상('거북')을 청자로 설정하여 행동을 요구(명령)함. •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냄.

현대어 풀이

신령스러운 존재여, 신령스러운 존재여.
임금을 (우리에게) 내려 주어라.
(임금을) 내려 주지 않으면
(너에게) 해를 끼치겠다.

나 공무도하가

핵심 정리	
길래	고대 가요, 서정시
화자	임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주제	임을 여윈 슬픔과 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 가요임. • 배경 설화와 함께 한역 시가로 전해짐. • '물'의 상징적 의미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정서를 형상화함. • 대상의 행동과 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나타남.

현대어 풀이

남편(백수 광부)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남편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남편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017쪽

- 1 ② 2 ③ 3 ①

1 먼저 대상을 '호명('거북아')하여 주의를 환기한 다음, 화자의 소망 실현을 '명령('머리를 내밀어라')하고, 이어서 그 소망이 실현되지 않는(대상이 화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내밀지 않으면')한 다음, 그렇게 되면 대상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구워서 먹으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머리를 내밀어라'라며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거북'이나 '내밀다' 등의 시어가 반복되지만 화자가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④ '거북'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지만 이를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내밀어라'에서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에 대한 거부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2 (가)는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불렀다는 점에서, 개인의 염원이 아니라 집단의 염원을 담은 주술적인 노래이다.

오답 해설 ①, ④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불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흙을 파는 것은 노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람들은 '거북'이라는 신령스러운(주술적인) 존재에게 '머리(왕)'를 내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배경지식 >> 「구지가」의 배경 설화

후한의 세조인 광무제 건무 18년 임인 3월, 액을 덜기 위해 목욕하고 술을 마시던 계육일에 북쪽 구지봉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2~3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사람 소리는 있는 것 같으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소리만 들렸다. 구간 등이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자, "내가 있는 데가 어디냐?" 하였다. "구지입니다." 하자, "하늘이 내게 명하여 이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라 하시므로 여기에 왔으니, 너희는 이 봉우리의 흙을 파서 모으면서 노래를 불러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하면서 춤을 추면 이것이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 날뛰는 것이리라." 하였다. 구간 등이 그 말대로 즐기 노래하며 춤추다가 얼마 후 우러러보니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늘어져 땅에까지 달았다. 줄 끝을 찾아보니 붉은 보자기에 금함은 싯 것이 있었다. 함을 열어 보니 알 여섯 개가 있는데 태양처럼 황금빛으로 빛났다. 여러 사람들이 모두 놀라 기뻐하며 백 번 절하고 다시 싸서 아도간의 집으로 돌아갔다. 상 위에 모셔 두고 흠어졌다가 12일쯤 지나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 함을 열어 보니 알 여섯 개가 모두 남자로 변하였는데, 성스러운 용모를 가졌다. 이어 의자에 앉히고 공손히 하례하였다.

3 (나)는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임의 죽음을 즉, 대상의 부재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대상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거나 예찬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대상의 행동에 대한 만류와 한탄이 드러나지만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④ 대상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으나 대상이 그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⑤ 대상이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대상과 이별하고 그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재회에 대한 희망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018~019쪽

-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⑤
06 ④

다 황조가_유리광

핵심 정리	
길래	고대 가요,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피꼬리
주제	임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처지와 자연물의 모습을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사상을 전개함.

12 ① 제가야산독서당_최치원

핵심 정리

길래	한시(절언 절구)
화자	속세와 떨어져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사람
성격	서정적, 상징적
주제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
특징	• 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상을 전개함 • 대조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현대어 풀이

(냇물이) 여러 겹의 바위 사이를 세차게 흘러 (물소리가) 몇 겹의 봉우리에 울리니
(사람들의) 말소리가 가까이에서도 들리지 않는구나.
늘 (사람들끼리) 웅으니 그르니 다투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봐 (두려워서)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싸서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네.

포인트 확인문제

본문 139쪽

- 1 ③ 2 ① 3 ⑤

1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의 부정적 성격으로 볼 때 당시의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설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인간의 소리인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와 자연의 소리인 ‘흐르는 물(소리)’을 대조하여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에 은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단절’이라는 물의 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④ ‘기(1구)~승(2구)~전(3구)~결(4구)’에 따라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화자가 물로 산을 둘러 버렸다고 표현하는 주관적 변용을 활용하여 속세와 단절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리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산골을 흐르는 냇물이다.

오답 해설 ② 인간의 소리인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흐르는 물’과 반대로 부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③ 3구의 ‘공’을 통해 사람들의 시비 소리가 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화자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④ 4구에서는 물소리를 이용하여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⑤ 자연의 소리(‘흐르는 물’)와 인간의 소리(‘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를 대조하여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3 ①은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화자를 속세와 단절시키는 소재에 해당한다. <보기>의 ⑤ 역시 세상을 가리는 ‘머흔 구름’과 함께 ‘던훤(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 주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③ ③~⑥는 가을 풍경 속의 자연물에 해당한다. ④ ④는 속세에 물들지 않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이 투영된 소재이다.

실전 복합문제

본문 140~141쪽

-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③

나 부벽루_이색

핵심 정리

길래	한시(오언 율시)
성격	회고적, 애상적
저재	부벽루 주변의 풍경과 감상
주제	지난 역사의 회고와 고려 국운 회복에의 소망
특징	• 변함없는 자연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대조함 • 세월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 앞부분에서는 풍경을 묘사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선경 후정을 활용함.

다 어부가_이현보

핵심 정리

길래	연시조
성격	풍류적, 자연 친화적
저재	어부의 생활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어부의 한정(閑情)
특징	• 화자를 어부로 설정하여 어부 생활의 흥취를 표현함. •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사상을 전개함.

01 (가)의 화자는 물소리로 속세의 소리를 차단함으로써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 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유 자적하게 살면서 속세를 잊으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속세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살고 싶어 할 뿐 자신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다. (나)의 화자도 인간 역사의 유한성과 그로 인한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처지가 불행하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다. ③ (다)의 화자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나)의 화자의 처지가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다)의 ‘한운’, ‘백구’는 자연 친화적 대상이라 할 수 있지만, 화자가 자연물을 본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가)와 (나)의 화자 역시 자연물을 본받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⑤ (가)~(다) 모두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배경지식 >> 「제가야산독서당」의 대조법

이 작품의 1구와 4구에서는 자연의 물소리를, 2구와 3구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비(是非)하는 소리를 제시하여 자연 속의 삶과 세상 속의 삶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 이는 시비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02 ‘임천한흥’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라는 뜻으로, <보기>의 화자는 현재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어느 곳에서 살든 흥겨운 일만을 취할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④ (가)와 (다)의 화자는 모두 속세와 거리를 둔 삶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삶을 사는 <보기>의 화자에게 두 화자가 했을 법한 말로 적절하다.

03 ‘봉우리 울리니’의 주체는 물소리로, 산골을 울리는 냇물의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물소리는 화자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봉우리 울리니’에 경세의 뜻을 펼쳐 이름을 날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③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리’는 혼란스러운 세태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보기>에서 최치원은 개혁 정책을 시행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말소리’와 ‘시비하는 소